4. 경영경제계열I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당시 일곱 살이었던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피란길에 오른다. 수지는 여동생(오목)에게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오목이가 갖고 싶어 하던 은표주박을 손에 쥐여주고 고의로 오목이의 손을 놓는다. 전쟁이 끝나고 친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수지는 어느 고아원에 오목이가 있음을 알고 가끔 찾아간다.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오목이와 다시 만난 수지는 죄책감을 느껴 오목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다. 수지는 죄책감을 씻는다는 생각으로 오목이의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남편이 중동으로 떠나는 날 오목이는 결핵이 심해져 쓰러지고 만다.

병원에선 오목이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목이의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은 해맑았다.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 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가 싫었어. 왜 그렇게 미웠는지, 아마 질투였나 봐. 언니 제발 용서해 줘. 일생에 누굴 그렇게 미워해 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난 미움받아 싸단다. 난 널 용서해 줄 자격도 없어. 아아, 내 죄를 네가 안다면……."

"근데 언니, 내 미움은 참 이상해.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언니가 처음이었으니. 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어야 했어.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두 내외가 다 고아 아뉴? 다 망가진 몸을 정신력 하나로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난 거야. 언니를 만나고부터는 정신력으로 살아 있는 그 지겹고 고된 일로부터 놓여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분명히 떠올랐을까. 아무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간 우애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런 걸 느낀 거야. 언니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언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건 내 전 재산이자 내 모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 만 나의 정체까지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었을 거야.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지녀 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 올려 보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어. 아아, 내 아이들……."

오목이가 천 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은표주박이었다. 은행알만 하고 청홍의 칠보 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노리개였다. 수지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공구해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꺾고 그것을 받았다. 어쩌면 수지가 지금 꺾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로만 일관해 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 마침내 그것을 꺾으니 한없이 겸허하고 편안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

"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

*동기간(同氣間): 형제자매 사이.
*공구(恐懼)하다: 몹시 두렵다.

(나)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 않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 식품’이라는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백 퍼센트’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서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는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해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 보낸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우 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느냐며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부쳤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 원액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두 달 전 일이었다. (중략)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 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 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사 인용 식탁을 놨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 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사 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튄 거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다가 아내는 영우의 보상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자고 말한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내가 막 일어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꼼짝하지 않았다.

“여기…… 영우가 뭐 써 놨어…….”

“…… 뭐라고?”

“영우가 자기 이름…… 써 놨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벽 아래를 가리켰다.

“근데 다…… 못 썼어…….” 아내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직 성하고…….” 아내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응하고…….”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싸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다) 그런 중에도 반백 년 교사 생활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학교에서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흰쌀밥으로 싸 오지 못하게 했고 음식점에서도 흰쌀밥을 파는 것이 금지됐다. 점심시간마다 담임 교사가 교실로 가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했다. 나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아이들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따끔하게 세 대씩 때렸다. 손바닥을 맞은 아이들은 다시는 쌀밥을 싸 오지 않았다. 나는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담임하는 반이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기를 바랐고 그건 혼분식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반 아이들의 삼분의 일가량이 아예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보릿고개 때가 되면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이른바 절량농가(絶糧農家)의 자식들이었다. 도시락을 혼분식 운동의 취지에 맞춰 제대로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전과 같이 손바닥 세 대,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아이들은 손등을 세 대씩 때렸다.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구운 옥수수를 도시락이라며 가져왔다.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네인 산촌 개운리에 사는 김만수였다. 수건도 아닌 책보 속에 책과 공책, 몽당연필과 함께 구운 옥수수를 그냥 넣어 왔다.

그건 지난가을에 수확해 처마 밑에 매달아 뒀던 씨옥수수였다. 내가 아무리 농사에 무지해도 농부는 종자가 든 자루를 끌어안고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것을 훔쳐 간 사람이 자식이라 해도 때려죽이려 들 것이다.

내가 우리 반의 혼분식 운동 참여율이 백 퍼센트라고 보고한 그 날,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숫가루로 만든 빵을 학교에서 배급하게 되었다고 교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일주일쯤 뒤에 미국에서 왔다는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학생들에게 다섯 알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달나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로 새로 개량한 옥수수 품종이었다. 심기만 하면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달리고 알도 우리 토종 옥수수의 두 배는 되게 굵을 것이라 했다. (중략)

그런데 그날 저녁 만수가 어둑할 무렵 집으로 찾아왔다. 저녁상을 잠시 물려 놓고 밖으로 나오자 만수는 내게 짚으로 싼 뭔가를 두 손으로 쳐들어 공손히 내밀었다.

"그게 뭐냐?"

"달걀입니다."

"달걀을 왜?"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낳았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달걀은 사 먹으면 된다. 너희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온 거냐."

"할아버지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됐다, 너나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내가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밀자 만수는 손을 감추며 잽싸게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닭을 드리고 싶지만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해서요, 선생님. 장닭이 없으면 병아리를 못 깝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도 모르고요. 그래서 달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도로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만수가 고개를 꾸벅하고는 말했다.

"맞아 죽지 않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수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짚신보다 약간 더 길쭉한 달걀 꾸러미를 들고 한동안 어둠을 향해 서 있었다. 고향의 학부형으로부터 생전 처음 받아 보는 진심 어린 촌지였다. 들고 있는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라) 역사 안에서는 주름이 반듯한 제복을 차려입은 역장이 로디지아*발 기차를 맞을 채비를 차리고 있었고, 역사 밖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앉아 있던 원주민 상인들이 물건 팔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망연히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자 목각상이 한 원주민의 자루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다. 역장의 아이들은 맨발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너저분한 지붕을 머리에 얹은 한 토담집에서 뛰쳐나온 닭들과 앙상한 뼈만 남은 개들이 선로를 따라 늘어선 흑인 원주민 아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었다. (중략)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옆에 있던 백인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다음에 사요." 여자가 채근했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에요. 다음에 살래요."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남편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늙은 원주민 상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객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기양양해 있었다.

"자, 이걸 보시라. 일 실링 육 펜스에 샀어."

"뭐라구요?" 그녀가 어이가 없는 듯 말했다.

"장난삼아 마지막으로 값을 흥정했지. 그랬더니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인이 기차를 따라오며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라고 하더군." 그가 만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자, 이거 당신 선물이야."

여자는 조각상을 받아들었다. 떡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검은 혀 그리고 섬세한 갈기! 생각대로 일이 잘되어 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짓는 표정처럼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는 신경질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냔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육 펜스에 말이죠."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남편은 망연자실 여자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여자는 모퉁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나뭇조각과 다리의 근육과 채찍 같은 꼬리를 사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그렇게 늠름하게 벌려져 있는 입과 파도처럼 말려 있는 검은 혀에 그토록 정교한 목의 갈기까지 얻는 데 일 실링 육 펜스라! 분노로 인한 열기가 여자의 다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와 귀에 모래를 쓸어 내는 소리를 쏟아부었다. 피로와 무기력함과 불현듯 찾아든 공허감이 여자의 사지로 퍼져 나갔다. 여자의 육신에서 소중한 그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로디지아: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옛 이름. 소수의 유럽계 백인들이 국민 다수의 흑인 원주민을 배제하며 정치 권력을 쥐었던 국가.

(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이 경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호 작물의 주요 소비국은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및 북부 아메리카의 선진국이다.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 재배나 직접 경영을 통해 기호 작물을 싼 값에 산 뒤 값비싼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많은 이윤을 남긴다. 반면 현지의 농민이나 노동자가 받는 몫은 매우 적고, 이들 정부도 밀, 옥수수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선진국에서 식량 작물을 수입해야 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 얽매여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구매력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동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옷을 사는 것은 노동자들의 착취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커피, 차, 빵과 채소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의사 표시 행위가 될 수 있다. 유기농 생산물을 선택하는 일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의견을 표명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슨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십장* 호머 배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에게 극약을 먹인다는, 아주 기괴한 이야기이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 버

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지요."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십장(什長): 일꾼들을 감독·지시하는 우두머리.

(아) 우리는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를 단순히 소비 상품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지닌 특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200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 선언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각자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 윤리의 관점을 지닐 필요가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상대방이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아래와 같은 게임을 통해서 선물을 주려고 한다.

-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 있는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때, 서로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 중에서 1개를 버리고, 나머지 1개는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을 모두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 주머니에 남아 있는 공을 가지고 위의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한 후 게임을 종료한다.
- 게임이 종료된 후 주머니에 들어 있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주머니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만큼 선물을 준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의 차이만큼 선물을 준다.

[문제 3] **한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출전 및 출제의도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2 경영경제계열 II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선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독서,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선물'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선물을 주는 사람의 동기가 받는 사람에게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유추하는 맥락적 사고력, 3)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이후에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서 도출하여 그 변화의 양상(두려움과 미인함에서 참회와 평온, 화가 나는 감정에서 슬픔의 표출, 부담감에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 감정,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서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도출해내는 종합적 사고력, 4) 특정한 개념을 활용해 사회 현상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5)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6)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문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7) 그리고 수리적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가 내포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독해력과 이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특정 관점에서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주어진 네 제시문을 '선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을 주고받음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선물이 갖는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선물을 받은 이후, 선물을 받은 인물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렇게 각 제시문에서 찾은 이유와 감정의 변화를 단순 요약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요령 있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능력, 말하자면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사회발전에 있어 타인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곡된 가치관 극복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원주민에 대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이라는 추상적, 윤리적 대전제를 파악해 내는 것이 첫 번째 단초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제교역 상황에 있어 선진국과 제3세계 간 공정하지 못한 노동 착취 구조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통합적 이해하고 이러한 통합적 이해가 반영된 답안지 구성이 필요하다. 백인우월주의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 공감의 방법인 역지사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세계시민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의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문을 통합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 3] 주어진 상황에서 확률변수가 가지는 값을 이해하고 관련된 확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은 중요하다. 특히,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확률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 확률 계산에서 이해력이 요구된다. 확률변수의 기댓값은 확률변수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값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산확률변수 및 그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 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8, 316~321쪽.
- 제시문 (나): 김애란, 「입동」, 최원식 외, 『문학』, 창비, 2018, 268~275쪽.
- 제시문 (다): 성석제, 「투명인간」,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8, 286~291쪽.
- 제시문 (라):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 「로디지아발 기차」, 정재찬 외, 『문학』, 지학사, 2018, 101~108쪽.
- 제시문 (마):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박안수 외, 『국어』, 비상교육, 2017, 236쪽.
- 제시문 (바):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 신정엽 외,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2018, 186~187쪽.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7, 145쪽.
- 제시문 (사): 장영희, 「나와 남」,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8, 44-46쪽.
- 제시문 (아):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7, 236쪽.

제시문 (가)는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박완서의 소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인용한 소설의 장면은, 6.25 전쟁 중 피란길에서 동생 오목을 버린 언니 수지가 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에게서 선물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오목은 수지가 자신의 언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마치 동기간처럼 정을 느끼게 된 수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 수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오목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제시문 (나)는 『문학』(창비, 2018)에 실린 「입동」에서 인용한 글로서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며, 학생들이 지문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중략 표시는 일부 생략했다. 어린이집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의 슬픔을 그려낸 소설 작품으로, 사고 이후 어린이집의 평판을 위해 무신경한 선물을 보낸 어린이집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부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성석제의 「투명인간」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원문을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이 작품은 혼분식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교사인 '나'가 가난한 농촌 마을의 학생들에게 혼분식 도시락을 싸오도록 시키고 이에 가난한 농가의 '만수'가 씨옥수수를 구워오게 되는데, 이후 미국산 옥수수 종자와 빵을 배급 받게 된 만수가 감사의 선물로 '나'에게 달걀을 선물한다. 이에 부담과 당황을 느끼다가, 순수한 선물에 교사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라)는 『문학』(지학사, 2018)에 실린 네이딘 고디머(이석호 옮김)의 「로디지아발 기차」를 출제의도에 맞게 일부 윤문하고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아프리카 원주민의 훌륭한 예술품 조각 작품인 사자상을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을 위해 그것을 선물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남편은 조각품의 가격을 흥정하여 싼 값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부인은 원주민의 노동과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비상, 2018)에 실린 신경림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를 전문 인용한 글이다. 이 시에서는 가난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랑 등의 인간 보편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감정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세계지리』(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 구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17)에 실린 「우리는 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할까요」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 및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앞의 제시문에서는 플랜테이션 중심 농업 구조를 통해 선진국들의 이익과 제3세계 노동자들의 고통이 맞물리는 과정이 잘 나타난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시민들의 윤리적 가치 소비를 통해 제3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8)에 실린 장영희의 수필 「나와 남」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하고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저자는 문학 수업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삶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나와 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역할 바꾸기, 즉 역지사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미래엔, 2017)에 실린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의 일부를 출제의도에 맞게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문화의 획일화를 경계하고 이를 위해 각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문화적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민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윤리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 3번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과서, 2020, 80-84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2020, 82-88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79-83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미래엔, 2020, 79-85쪽.
- 류희찬 외, 『확률과 통계』, III-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천재교과서, 2020, 85-92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0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교학사, 2020, 89-95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좋은책신사고, 2020, 84-90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미래엔, 2020, 86-91쪽.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가)의 오목이는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며, 이를 받은 언니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뤄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낀다. (나)의 어린이집은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원생들의 집에 선물을 보냈으나, 배려 없는 선물에 부부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한다. (다)의 만수는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고, 선생님은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라)의 남편은 부인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선물을 사줬다. 부인은 처음엔 헐값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낀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568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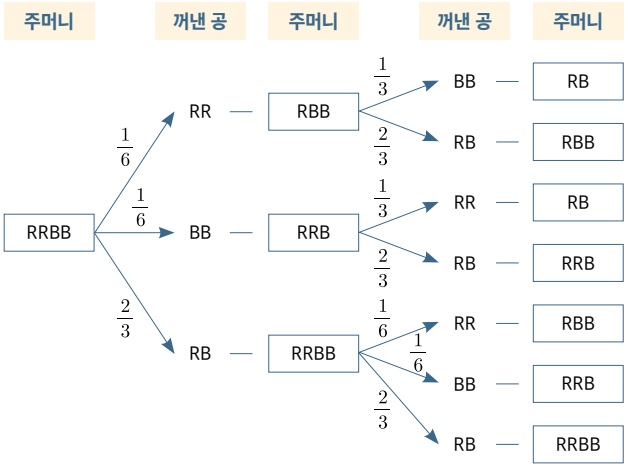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사)와 (아)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하고 있다.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한다.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하자면, 먼저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된다. (567자)

[문제 3]

- 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와 그 확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R는 빨간 공, B는 파란 공을 나타낸다.
-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 2개(RR)를 뽑을 확률은 $\frac{{}_2C_2 \times {}_2C_0}{{}_4C_2} = \frac{1}{6}$이고,

  두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RB)를 뽑을 확률은 $\frac{{}_1C_1 \times {}_2C_1}{{}_3C_2} = \frac{2}{3}$이다.
-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와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선물 개수	발생 확률
RB	2	$\frac{1}{6}\times\frac{1}{3}\times 2=\frac{1}{9}$
RBB	1	$\frac{1}{6}\times\frac{2}{3}\times 2=\frac{2}{9}$
RRB	1	$\frac{1}{6}\times\frac{2}{3}\times 2=\frac{2}{9}$
RRBB	4	$\frac{2}{3}\times\frac{2}{3}=\frac{4}{9}$

- 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선물 개수	발생 확률
RBB 또는 RRB	1	$\frac{1}{6}\times\frac{2}{3}\times 2+\frac{1}{6}\times\frac{2}{3}\times 2=\frac{4}{9}$
RB	2	$\frac{1}{6}\times\frac{1}{3}\times 2=\frac{1}{9}$
RRBB	4	$\frac{2}{3}\times\frac{2}{3}=\frac{4}{9}$

-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text{기댓값} = 1\times\frac{4}{9}+2\times\frac{1}{9}+4\times\frac{4}{9}=\frac{22}{9}$$

채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이유**: 자신을 챙겨주는 언니를 가족으로 느끼고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2점)
변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미안함을 느꼈으나 미뤄왔던 고백을 통해 참회하고 평온을 느낌(6점)

(나) **이유**: 어린이집에서 나빠진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에는 화를 냈고, 이후 억눌린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아이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기 시작(6점)

(다) **이유**: 씨옥수수로 인한 곤란함을 해결해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부담을 느꼈지만 학생의 처지를 고려치 않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낌(6점)

(라) **이유**: 부인이 갖고 싶던 사자상을 선물해주기 위해서(2점)
변화: 처음엔 헐값에 조각상을 사온 남편에게 분노했고, 끝내 원주민의 예술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과 공허감까지 느낌(6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찾은 '선물을 주는 이유'와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은 이후부터 겪는 감정의 '변화'를' 자신의 언어로 잘 압축하여 글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가)~(라)는 선물을 주고받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 **결론**: 결론적으로, 선물을 주는 이유는 고마움, 평판 회복, 감사, 애정 등이며, 이를 통해 변화된 감정은 평온, 슬픔, 부끄러움, 공허함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이유와 변화를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 파악: (마)는 개인이 처한 가난과 같은 상황이 인간의 기본적 감정과 욕구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존엄성을 표현 (5점), (바)는 선진국들이 우월한 교역 관계를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수탈하는 구조적 관계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를 비판(5점)

②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라)의 부인은 남편이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으로 제작된 예술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고 추론해 내야 함(10점)

2)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①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 파악: (사)는 역할 바꾸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나와 남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5점), (아)는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5점)

② 이 둘의 관점에서 당시 백인들이 갖고 있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모색해 보자면, 원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더불어 공존의 윤리와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세계 시민적 태도가 요구됨(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부인'이 '남편'을 비판한 근거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도출한 경우	9~15점
		(마)와 (바)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비판 근거를 논리적으로 도출한 경우	16~20점
	② 제시문 (사)와 (아)의 논지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당시 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만 파악한 경우	3~8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까지 파악하고, 이 중 일부를 사용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 경우	9~15점
		(사)와 (아)의 각각의 논지를 모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하여 왜곡된 가치관 극복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16~20점

[문제 3] 20점 만점

- 첫 번째 시행에서 공을 뽑은 후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6점
- 두 번째 시행에서 공을 뽑은 후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9점
- 게임의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와 그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